

## 한-중 FTA 체결이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

손수연

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

BK21Plus 국제통상분쟁조정사업단

박사과정

Keywords : 한-중FTA, 국내영화산업

### I. 서론

2014년 11월 협상 타결에 이어 2015년 2월 한-중FTA는 가서명의 단계까지 완료<sup>1)</sup>되었다. 국회비준동의를 거쳐 발효까지 아직 단계는 남아있지만,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의 FTA 체결에 각 분야의 산업들과 학계에서의 준비와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. 지난 2015년 3월 한-중FTA의 협정문이 공개되었고, 정부는 국내의 기업들의 한-중FTA 활용을 위한 원스톱 지원창구인 ‘차이나데스크’를 설치<sup>2)</sup>하여 국내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고자 움직이고 있다. 정부에서 발표한 한-중FTA는,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선점할 수 있으며,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이익을 제도적 기반 내에서 보호할 수 있고,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 또한 한-중 관계가 강화되어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, 북미, 유럽,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위상을 확보 할

1) 2014년 11월 10일 협상 타결 : APEC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실질적 협상 타결 선언, 이는 2012년 5월 14일 제1차 협상(Kick-off meeting, 北京) 후 30개월 만에 협상 타결 도달한 것이다.

·2015년 2월 25일 한-중FTA 가서명 완료

2)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, <http://www.motie.go.kr>

정부는 2015년 2월 25일 ‘한-중 자유무역협정(FTA)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’을 발표, 주요내용 7가지 중 하나인 ‘차이나데스크(China Desk)’를 2015년 3월 11일 개소하였다. 무역협회 3층에 설치한 차이나 데스크는 KOTRA 등 정부 각 처의 수출 지원 5대 전문기관에서 파견한 전문가와 관세사, 변호사, 인증전문가, 무역퇴직 전문인력 등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한-중FTA 활용 및 수출산업화 지원,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등 국내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<sup>3)</sup> 또한 KOTRA<sup>4)</sup>는 유럽에서 바라보았을 때, 중국을 겨냥한 EU의 기업들은 한국을 거점지역으로 두고 한-중FTA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어, 중국의 대한(對韓) 투자 외에도 EU의 대한(對韓) 투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(KOTRA, 2014).<sup>5)</sup>

국내 한 연구소에는 한-중FTA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의 영향으로, 철강, 섬유, 비금속광물, 타이어 등의 업종은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반면, 기계, 부품, 장비, 화장품, 유통 업종을 비롯하여 전자상거래, 관광 및 운송서비스, 문화콘텐츠, 음식숙박업 등의 서비스산업 부문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연구 및 발표하였다(하나금융경영연구소, 2014).

본 연구는 한-중FTA 체결로 인하여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산업분야 중, 문화콘텐츠분야, 그 중에서도 영화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.

한국영화의 중국진출은 1990년대 말 ‘한류(韓流)’의 흐름과 함께 중국에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,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본격화되었다(KOFIC<sup>6)</sup>, 2012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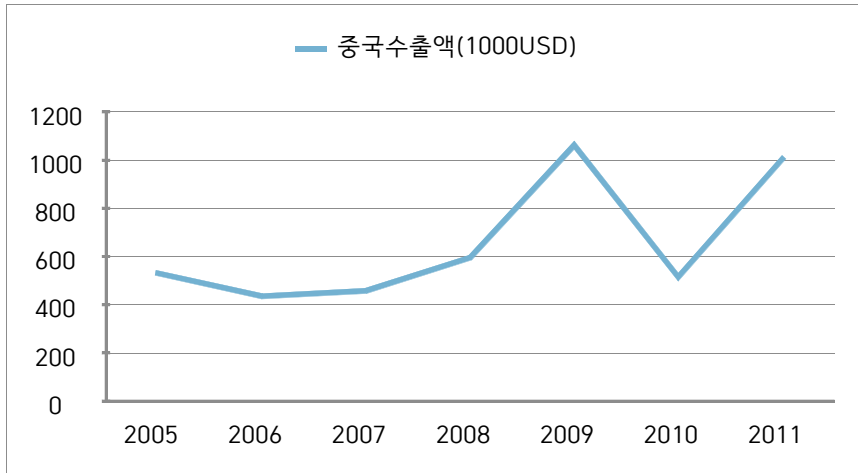
3) FTA강국, KOREA, <http://www.fta.go.kr> - 한·중FTA ‘한-중국 FTA 타결의 의의’

4) KOTRA(Korea Trade-Investment Promotion Agency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),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·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이다. (두산백과, 2015. 5. 14. 검색결과)

5) KOTRA, globalwindow, <http://www.globalwindow.org>

‘유럽에서 바라본 한-중FTA 타결’에서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EU기업의 대한(對韓)투자 증가 예상, 향후 EU-중국 투자협정 협상 진정 가능성에 대하여 예측하고 있으며, 이에 대비하여 FTA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에서의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.

6) KOFIC(Korea Film Council, 영화진흥위원회),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 받은 범국가 부문(Wider State Sector)의 전문기구.(KOFIC, <http://www.kofic.or.kr>)



출처: '중국의 영화산업 현황과 한·중 공동제작' <그림5-1>, (KOFIC 연구보고 11-3)

하지만, 검열정책, 쿼터제 등의 자국 내 외국영화 수입에 관한 제도적인 제약 탓에 중국 영화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많은 영화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진출하는 경우들이 많았으며, 단순히 영화 상영으로 인한 수입은 높지 않았다.

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영화시장은 한-중FTA 체결에 따른 영화시장의 개방과 그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으나, 영화부문의 경우, 직접적인 수출입 사항은 제외되었으며, 서비스산업 내 부속서7)를 작성하여 한국과 중국, 양국간의 공동영화제작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다. 본 연구는 공동영화제작의 협의가 지어진 한-중FTA로 인하여 한국의 영화산업의 대중(對中)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.

7) 한-중FTA 협정문 중, '제8장 서비스 무역 - 부속서 8-나 영화공동제작'

